

최재훈, 새로운 비전 정책...

대구 심장 달성 관련기사 2면

100년 초석 다진다

최재훈 달성군수가 2024 갑진년 달성의 미래를 꿈꾸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다.

군민이 빛나는 달성 건설이다. 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려고 애쓴다. 무엇보다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 내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복지건강도시만이 100년 초석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군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거대한 야심작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 미래 50년을 먹여살릴 경제 심장부가 바로 달성의 희망이다.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일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최재훈, 모든 계층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위험도 높은 위기가구 행복e음 '시스템'으로 선제적 발굴 달성군민 건강한 '삶' 영위 책임

최재훈 달성군수가 획기적인 혁신과 능동적인 변화로 달성의미래 100년 초석을 다진다.

최 군수는 산재한 역점사업에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 무엇보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는 27만 군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 실현에 매진한다.

달성에서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의지를 보였다.

최 군수는 의료취약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달성건강행방이와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24시간 응급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쓴다.

달성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한 일이 없도록 군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뿐 아니다. 해마다 이용자가 늘고 공간이 협소,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북부노인복지관을 증축, 주차장을 만들어 어르신이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장애인이동나드리콜과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최재훈 달성군수가 겨울철 고독사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1인 가구, 중장년 및 노인 가구 증가 등 전통적인 가구 구성의 변화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탓이다.

최 군수는 "최근 연령층을 불문하고 취약계층의 고독사 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달성군은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군 등 겨울철 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달성군은 24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읍면 담당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읍면 실무담당자와 달성시니어클럽 실무자와 함께 고독사 예방 사업의 운영상황을 중간 점검한다.

올해 신규사업에 대한 안내 및 ICT(정보통신 기술)를 활용한 스마트복지사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민 행정의 최전선인 읍면을 중심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공모사업에 참여, 지역복지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무엇보다 위험도 높은 위기가구를 행복e음 시스템으로 선제적 발굴한다.

지역특화형 위기정보 빅데이터 정보(전기, 가스요금 등 연체정보)를 활용한 현장방문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신속 발굴에 총력을 다한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2024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실태조사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추진 △고독사 예방 '달성안심서비스' 무료 배포 △24시간 시동보미 지원사업 △공적급여연계 및 긴급지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해 취약계층의 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주거환경개선, 건강증진, 고독사 위험도 점검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복지대상자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행복 나눔 안부문기사업'에 앞장선다.

주기적으로 건강음료를 전달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는 '건강음료 지원사업', '온기한끼(반찬지원사업)'도 펼친다.

민간자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행정력을 모은다.

달성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독사 고위험군 500여 명을 대상으로, '달성안심서비스' 앱을 무료로 배포 및 설치 지원해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긴급복지 지원

달성군이 겨울철 위기가구를 꼼꼼히 살핀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동절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한 만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동절기 위기가구의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한국·시비 등 5억원을 확보했다.

오는 3월까지 겨울철 긴급복지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생계비 월 162만원(4인 가구 기준), 주거비는 66만원까지,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부가급여로 연료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실제 지난해 위기 상황에 처한 2314가구에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하반기 5억원(국비 4억원 포함)의 긴급복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 취약계층 위기상황 해소에 힘을 쏟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다.

소득기준은 4인 기준 405만원 이하, 재산 기준은 2억4100만원, 금융 재산 600만원(주거지원 800만원) 이하다.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선(先)지원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로 판단한다.

달성군은 긴급지원 후에도 공적자원·민간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겨울철 긴급복지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 주민자치센터 상담을 활용하면 된다.

■ 현풍천 주민 쉼터 새단장

달성군이 현풍천 경관개선사업에 60억원을 쏟아부었다.

최재훈 달성군수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현풍천 경관개선사업'은 달성군 지역 대표 하천인 현풍천의 경관을 개선, 현풍의 구도심과 현풍백년도깨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다.

현풍천 경관개선사업은 내달부터 실시계획 영역에 들어오는 9월 본격 공사를 한다. 공사는 현풍백년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풍3교-현풍교 구간을 우선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현풍3교부터 원호루교까지 1.4km 구간에 녹화 식재, 색채 도장, 경관 조명 설치 등이 이뤄진다. 물발마당 등 지역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친수공간도 조성한다.

테크노폴리스 단지과 현풍천 산책로 사이의 단절구간(상리교-원호루교)에도 산책로가 들어선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현풍천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현풍의 구도심과 현풍백년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풍의 모습을 되찾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여은 기자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경주시가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2024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을 덜기위해 마련했다. 금액은 공급관 설치비용 중 수요가부담 시설 부담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

주택 소유자로 영업 및 업무용 목적 사용시설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2월 1~29일까지 1개월 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현장 조사 후 5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경주시,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권 활성화 모색

전통시장 화재 대비 점검 설맞이 물가안정 대책논의

경주시가 설맞이 물가안정 대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인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낙영 시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지역 상인회장, 임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회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성수품 중심의 물가안정 동참 요청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소식을 전하며 상가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시설, 난방시설 등에 대해 철저히 살피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물가책임관 점검 등의 물가안정 종합 대책을 설명하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폐이, 온누리상품권 등의 결제편의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계몽운동

참여를 비롯해 시장 내 원산지 가격표시, 청결한 위생환경과 친절하고 고객응대를 독려했다.

전통시장 내 화재보험 가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화재공제 지원사업'과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했다.

여기에 △우수제품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60개사) △소상공인 특례보증(4000만원 이내) 및 이차보전(4% 이내 2년간)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50~80% 환급) 등의 사업을 설명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안내했다.

상인회 대표들의 건의·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올해도 경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전통시장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통장...

경주시, 디딤씨앗통장 지원 올해 2.6배 확대

경주시가 올해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대상과 연령을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보호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두 배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3만원을 적립하면 6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 지원금 최대액은 10만원이며, 18세 미만까지만 지원된다.

18세 이후 학자금과 주거비 마련, 기술자격과

취업 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24세 이후에는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가입 연령을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한다.

생계·의료급여로 한정됐던 소득 기준도 주가·교육 급여 수급 가정 아동까지 범위를 대폭 넓혔고 가정위탁, 시설 입소 아동 또한 가입이 가능하게끔 조정했다.

시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지난해 4억 1749만 4000원에서 올해부터는 10억 9357만원으로 전년 대비 2.6배 이상 늘렸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경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2024 신년교례회

경주 전국 나눔문화 1번지 경주 최부자가문의 정신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나눔 문화 확산 적극 앞장

경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지난 23일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신년교례회에는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전우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손영훈 경주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장,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경주26호(경북164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오원규 나원산업(주)회장의 신규 가입식이 진행됐다.

누적 기부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주1호 아너 이상춘 현대강업(주) 회장과 경주2호 아너 김준호 (주)세인트 대표의 실버클럽 가입식도 펼쳐졌다. 아너소사이어티 중 누적 기부금액이 3억원 이상은 실버클럽, 5억원 이상은 골드클럽이다.

주낙영 시장이 2024년 희망나눔캠페인 목표 조기달성과 아너소사이어티 발전 등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복지공

동모금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5년 이내 1억원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이며, 경주시는 현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수 26명으로 경북도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희망 2024 나눔 계몽운동은 목표액 8억 원을 조기 달성, 현재 9억 3300만원 모금으로 사랑의 온도 116도를 기록하고 있다.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경주 최부자 가문의 정신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 서주고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경주시, 국토부 공모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 선정

주낙영, "공모 선정 계기 경주만의 색깔 입힌 공공건축 전라수립" 강조

경주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4년 민간전문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지원 사업' 2개 분야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2800만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총괄·공공건축가 분야 운영지원 선정

에 이어 2년 연속 선정이다.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지원사업은 정부가 지자체의 공공건축·공간의 디자인 수준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건축 사업 등에 민간전문가 참여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으로 경주시는 총괄·공공건축가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돼 공공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각지

역 여건에 맞는 공간환경전략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경주만의 색깔을 입힌 공공건축 전략을 수립,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만들어 시민들이 찾고 싶어 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용찬 기자 / 사진은 경주시 제공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개원

경주시는 지난 22일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중등 청소년과 보호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원식을 개최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성장을 위해 학습지원, 다양한 체험활동 및 생활관리, 고민상담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주시의 핵심 청소년정책 사업이다.

올해는 중등 청소년 42명을 선정 △학습지원(주요 교과 학습, 보충학습, 독서 및 자율학습) △체험·역량강화(진로 역량개발, 자기계발, 지역사회 참여, 주말체험활동)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귀가차량) △특별지원(운동회, 캠프,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북

포항 울진
영덕 울릉

울진군, 어업대전환 프로젝트로 초석을 다진다



영덕 축산면 (주)와이엔피산업 나눔캠페인 3000만원 쾌척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주식회사 와이엔피산업의 최동연 대표가 지난 23일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나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울진군, 한방·구강 디딤교실 9개마을 2월14일까지 운영

울진군은 보건소 내·외 자원과 연계해 한방·구강 디딤교실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지난 23일부터 2월 14일까지 울진읍 9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한방·구강 디딤 교실을 운영한다.

구강보건 교육을 시작으로 한의과진료(침 등), 중풍 및 골관절염 교육, 아울러 물리치료 및 다이어링 요법을 통해 통증 관리까지 제공하며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할 예정이다. 이경수 기자



영덕시장 재건축사업 시공사 설명회 개최

영덕군은 지난 22일 영덕군 새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영덕시장 재건축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지난해 화재로 소실된 영덕시장 재건축을 현실화한 데 이어 구체화됐다. 이번 설명회는 영덕시장 재건축사업 시공사가 올해 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로 영덕군 관계자와 영덕군의회,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조여은 기자

신선 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컨설팅 시범사업 결과보고회

울진군은 어자원 감소, 수입 수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어업대전환 프로젝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특히 어업대전환의 일환으로 새로운 유통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신선 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해 지난 22일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신선 수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컨설팅 시범사업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및 수도권·내륙권 당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군과 용역업체가 협업해 캠프박스 및 은박박스, 스티로폼 박스 등으로 패키지를 세분화하고, 고속버스 및 냉장탑차 등으로 나눠 실제 100여 건 이상의 주문을 당일 배송 처리했다.

이를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해 사업을 본궤도로 올리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울진군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

들과 상생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인근 산간 지역 수산물 배송 시스템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울진 수산물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순경복 울진군수는 "신선 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의 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정책 방향의 하나인 어업대전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분야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수 기자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에 총력

경북도-도교육청-울릉군-울릉
교육지원청-한동대 업무협약 체결

울릉군은 지난 23일 경북도교육청 옹비관에서 경북도, 경북도교육청과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등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주요사업

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울릉군은 교육발전특구 전략을 △초·중·고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협약형 울릉 학습 커뮤니티 선도 △유보통합 및 DX 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마련하고 9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울릉의 발전과 미래 교육·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늘봄교육,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모델을 마련하는 계기 될 것"이라며 "교육청, 대학, 기업체 등과 힘을 모아 지역인재들이 울릉에 정착하고 꿈을 찾고 일자리를 갖는 울릉형

교육선순환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며,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 울릉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에 도전하며, 시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울릉형 교육발전특구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견 반영을 위해 인터넷과 우편으로 1월 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 정윤환 기자

독도박물관-상주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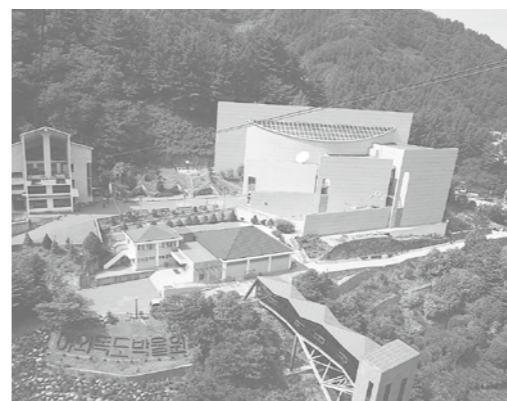
독도박물관이 상주박물관과 상생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24일 지역거점 박물관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박물관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및 박물관 교류사업 추진이 주요 목적이다.

주요 협약사항으로 ▲박물관 주요 업무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 추진 및 홍보 협력 ▲박물관 교육사업 상호 추진 ▲학술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의 상호 협력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

호기관 소장 자료 및 이용에 관한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오는 8월에 상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독도를 주제로 한 공동기획 전시회를 결정했다.

두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 상주의 지역민 및 학생들이 울릉도 및 독도에 방문하여 체험형 현장교육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전시 연계교육의 일환으로 독도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 및 특강운영 등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역 거점박물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상호 기관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가 지역민들의 문화적 체험 기획의 다양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윤환 기자

포항사랑상품권 24일부터
10% 할인 판매... 300억원 어치

포항시는 오는 24일부터 올해 첫 포항사랑상품권 300억 원 어치를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다.

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 한도는 포항사랑카드와 지류형을 통합해 월 40만 원까지며, 지류형 상품권은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지류형 100억원, 카드형 200억원 어치를 10% 할인 판매한다.

시는 지류형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추위 대응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지류형 상품권 구입은 모바일 앱을 통한 포항사랑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찾고 있음에 따라 지류형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165개소 금융기관에 추위에 대비해 지점별로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금융기관은 미리 대기 번호표를 발행해 번호순서대로 시민들이 금융기관 내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포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홍보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방한용품 준비 등 추위에 대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창명 기자

영덕,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제3기 예비액션그룹 모집

영덕군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의 제3기 예비액션그룹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조건은 제3기 예비액션그룹(신라이징스쿨 교육) 교육을 18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1·2기 예비액션그룹 교육을 1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1·2기 사업신청자 중 탈락자를 대표자로 10명 이상의 그룹을 구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영덕군은 이번 사업의 비전과 전략에 맞는 그룹 30개 정도를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며, 1·2기 액션그룹에 참가하고 있거나 사업추진 중도에 포기한 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사업 분야는 농산물생산, 가공 및 상품개발, 행사 및 기획 운영, 농촌관광체험, 온라인마케팅 등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면 가능하다. 조여은 기자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Background image of Gyeongsan city buildings)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최기문 영천 시장은 25일 오전 시장실에서 경농산업(대표 장재욱)으로부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받고,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스타사랑 봉사단으로부터 이웃돕기 물품(포도주스 400박스)을 기탁받는다.



고령군 모범음식점 역량강화교육 및 간담회

고령군은 지난 23일 대가야역 스테마관광지 인빈관에서 고령군 모범음식점 대표자 18명과 관광진흥과 직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배영백 기자



민병관 칠곡소방서장 성우플라텍 공장 지도방문

칠곡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으로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인 왜관 성우플라텍 3공장(1급 소방대상물)에 방문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지도방문은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공장 내 제조시설을 둘러보며 최근 발생한 화재 사례 등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체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 '희망나눔 후원 키트' 전달

(사)경북도지체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역 장애인 가정(900가구)에 "2024 희망나눔 후원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경산시의회,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케'
2024년 읍·면정 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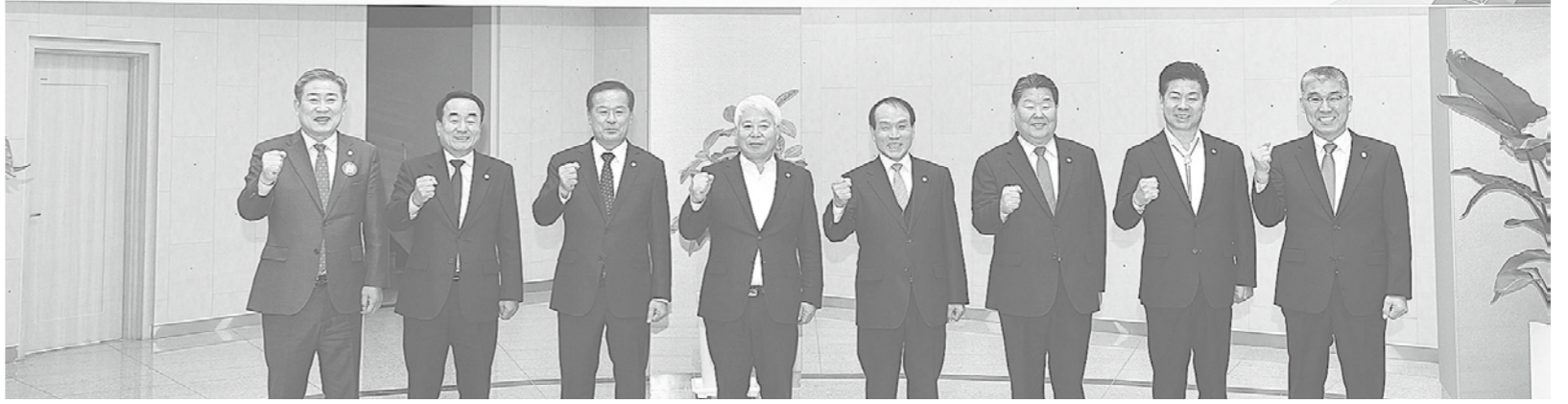
경산시의회는 지난 19일 '경북도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1월 월례회'를 경산시의회에서 개최했다.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포항, 경산 등 경북 남부권 11개 시·군의회의장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월례회는 경산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해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순득 의장의 환영사, 조현일 경산시장의 인사말, 안건토의,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운영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항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상호 토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은 "갑진년 첫 월례회를



경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북 남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상호협력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여 경북 남부지역 시·군 지방의

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신경은 기자

청도군, 계약원가심사로 9억 6천만 원 예산 절감

청도군은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9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총 160건 501억 원 규모의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개선, 과다 계상된 물량·요율 시정, 노안·폼셈 적용 오류 등을 바로잡았다.

분야별 절감액은 △공사 120건, 8억 원 △용역 24건, 1억 5천만 원 △물품구매 16건, 1천만 원이다.

계약원가심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원가계산 적정성 등을 심사

하는 제도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앞으로는 내실 있는 사전 예방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사전에 차단하고,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주, 참외 담배가루이 총력방제

성주군은 지난 23일 여름철 참외 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담배가루이의 효율적인 방제 목적으로 참외 들녘별 병해충 경보 체계 구축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병해충 모니터링 요원 20명을 선발하고 발대식 및 병해충 예찰·방제 교육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들녘별 모니터링 요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참외 들녘별 병해충 경보 체계 구축사업 세부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담배가루이 등 병해충 예찰 결과 상시 공유·방제 홍보 등 현장의 수요와 동향에 대한 양방향 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일정수준의 해충 밀도가 확인되면 들녘단위 정보를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보 1단계는 문자로 통보하고 2단계 동시방제 발령을 내린다. 도재훈 기자

경산시-대학산학협력단 간담회

경산시는 지난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경산시-대학산학협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인구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의 시대를 맞아 지역과 대학의 상호협력

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산시의 대학교 재정지원 공모사업 추진 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지역과 대학이 직면한 위기의 시대에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동반 성장할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대학팀'을 신설하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경은 기자

영천시, 청년 농업인 '농식품 아이디어' 경연대회

최대 1억원 지원

2월 1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접수

영천시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식품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농업과 관련한 특특 튀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통해 지역 청년 농업인을 육성한다.

오는 2월 19일까지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체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계획을 접수한다. 1979년 이후 출생한 농업인(예비)으로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타지 거주자는 사업을 개시하면서 영천으

로 진입해야 하고, 지원된 시설과 기계의 사후 관리 기간까지 반드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번 경연에서 최종 선발되면 최대 1억 원까지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 시설을 지원한다. 자부담 10%를 포함하며 필요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타당성 과구체성 평가에서 점수가 낮으면 제외될 수 있다.

기존 농업 분야에 산재한 문제점을 해결할 참신한 아이디어나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색다른 시도 및 구체적 계획이면 유리하다.

지난해 첫 대회에서 16명이 참가해 애완동물 사료 개발, 전통주활용 등 5건이 채택됐고 현재 사업화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자세한 내용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www.yc.go.kr/fa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청년의 창의와 열정이 농업 분야에서 빛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고령군 드림스타트, 아동 학습지원 업무협약

고령군은 지난 23일에 관내 학원 및 학습지 업체 등 11개 업체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44명에게 기초학습 증진과 잠재적 재능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월 8-15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아노, 미술, 국어, 수학 등의 학원 수강료를 정액 지원하고, 협약을 체결한 관내 학원 10개소는 학원비의 10%-30%를 후원한다. 교재비와 수강료의 일부는 대상자가 자부담하여 올 2월부터 11개월간 지원된다. 가정방

문 학습지는 군에서 1인당 2과목 월 6만 4천원을 지원하고, 협약업체에서 과목당 6000원을 후원하며, 학원비 지원과 같은 기간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학습환경 향상을 위해 지원해주시는 학원 및 학습지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영백 기자

젊은 고령! 건강한 고령!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령군에 기부하세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 ♥ 기부대상: 개인(법인, 단체는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령군이 아닌 고령군에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 연간 500만원 한)
-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기부금 | [대면] 전국 농협은행
- ♥ 기부혜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이내

▶ 답례품 목록: 고향옥미, 쌀, 맷돌, 멜론, 개진감자, 명품한우, 한돈, 두정술 세트, 고향사랑상품권, 고향물부품

※ 고향물 쿠폰을 선택하시면 수박, 전통장류, 딸기잼 등 274개의 다양한 특산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문의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54-950-6803



꼭지 하나 달렸을 뿐인데... 청송사과 더욱 신선합니다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